GIST, 담양군과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MOU

- 인공지능, 메타버스,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및 지역특화산업 분야 -
- 지역 산업 육성, 첨단 과학기술 활용, 연계사업 발굴, 교육 협력, 인재 양성 등 5개 분야 협력하기로
-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지역의 미래 신산업(지역문화 및 관광 활성화 등) 육성 기반 마련 기대"



▲ GIST와 담양군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화·관광 발전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왼쪽부터) GIST 임기철 총장과 담양군 이병노 군수가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전라남도 담양군(군수 이병노)과 **첨단 과학기술** 을 활용한 지역 문화·관광 발전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7월 10일(수)** GIST 임기철 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김경중 한국문화기술 연구소장(융합기술학제학부 교수)과 담양군 이병노 군수, 강경원 행정국장, 한연덕 기획예산실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청**에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지역 산업 육성: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한 공동협력 ▲첨단 과학기술 활용: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로봇 등 교육 및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연계사업 발굴: 정부 4차산업 관련 연계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공동협력 ▲교육 협력: 담양군 교육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협력 ▲인재 양성: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교육과정 개설 협력 및 장학생 선발 등이 포함됐다.

담양군은 2027년(예정)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GIST 와의 협업을 통해 죽녹원 등 주요 관광지를 디지털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GIST와 담양군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화·관광 발전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임기철 GIST 총장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GIST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지식, 산업에 관한 경험을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 "담양군의 문화·관광 콘텐츠에 GIST의 AI·디지털 기술력을 입힌다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군은 다른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GIST의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담양군의 문화관광 산업에 접목하여 **다양한 체험·체류형 관광인프라의 도시 담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